

2016 | 12 December
vol.197



손으로 보는 세상



시선집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직종 개발과
적절한 직업재활 서비스의 필요성

테마기획

시각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보행지도사'

인 터 뷰

눈 가리고 한 끼의 첫 번째 주인공,
아름다운가게 일산주엽점 활동천사들

포 커 스

만지며 느낀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손으로 보는 생물다양성'



02 | 목차

03 | 점자로 말해요 - 송년회

04 | 시선집중 - 시각장애인을 위한 직종 개발과 적절한 직업재활 서비스의 필요성 / 서원선(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06 | 테마기획 - 시각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보행지도사'

08 | 인터뷰 - 눈 가리고 한 끼의 첫 번째 주인공, 아름다운가게 일산주점점 활동천사들

10 | 포커스 - 만지며 느낀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손으로 보는 생물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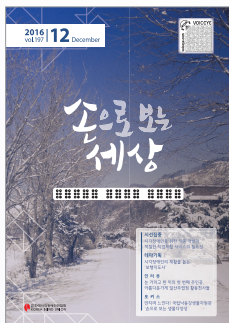
12 | 함께 사는 이야기 - 엉뚱한 상상 / 김서진(경기도 수원시)

13 | 월드 리포트 -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클립트의 '키스' / 독일 가전전시회 IFA, 시각장애인 전용 가이드 투어 선보여

14 | 뉴스앨범

- 경기도 양평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겨요!
- 한시련,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무자 워크숍 실시
- 추운 겨울, 김장김치로 사랑을 나눠요!
- 2016년도 취업자 평가회 열려
- 2016 정보 접근성 기술 컨퍼런스 개최
- 2016년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송년회 열려

16 |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 시각장애인이 택시를 탈 때



손으로보는세상 2016년 12월 197호

발행일 2016년 12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이병돈 편집 김민지

주소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799,1043 F 02,6925,1117

홈페이지 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한국엠디 02,867,1921 캘리 모노D

1년을 정리하는 12월이 되면

서로 만나 한 해의 일들을 나누는 송년회를 진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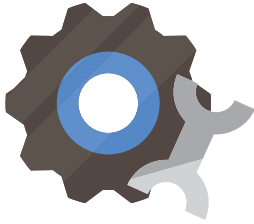
송년회는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송년회

① ④
② ⑤
③ ⑥

점 자 일 람 표																
자 음	ㄱ ○● ○● ○●	ㄴ ●● ○● ○●	ㄷ ○● ●● ○●	ㄹ ○● ○● ○●	ㅁ ○● ○● ○●	ㅂ ○● ○● ○●	ㅅ ○● ○● ○●	ㅇ	ㅈ ○● ○● ○●	ㅊ ○● ○● ○●	ㅋ ●● ○● ○●	ㅌ ●● ○● ○●	ㅍ ○● ○● ○●	ㅎ ○● ○● ○●	된소리 ○● ○● ○●	
받 침	ㄱ ●● ○● ○●	ㄴ ○● ○● ○●	ㄷ ○● ○● ●●	ㄹ ○● ○● ○●	ㅁ ○● ○● ○●	ㅂ ○● ○● ○●	ㅅ ○● ○● ○●	ㅇ ○● ○● ●●	ㅈ ○● ○● ○●	ㅊ ○● ○● ○●	ㅋ ○● ○● ○●	ㅌ ○● ○● ●●	ㅍ ○● ○● ○●	ㅎ ○● ○● ○●		
모 음	ㅏ ○● ○● ○●	ㅑ ○● ○● ○●	ㅓ ○● ○● ○●	ㅕ ○● ○● ○●	ㅗ ○● ○● ○●	ㅛ ○● ○● ○●	ㅜ ○● ○● ○●	ㅠ ○● ○● ○●	ㅡ ○● ○● ○●	ㅣ ○● ○● ○●						
	ㅞ ○● ○● ○●	ㅟ ○● ○● ○●		ㅠ ○● ○● ○●	ㅡ ○● ○● ○●	ㅢ ○● ○● ○●	ㅣ ○● ○● ○●		ㅤ ○● ○● ○●	ㅥ ○● ○● ○●	ㅦ ○● ○● ○●		ㅧ ○● ○● ○●		ㅨ ○● ○● ○●	
약 자	가 ○● ○● ○●	나 ○● ○● ○●	다 ○● ○● ○●	마 ○● ○● ○●	바 ○● ○● ○●	사 ○● ○● ○●	자 ○● ○● ○●	카 ○● ○● ○●	타 ○● ○● ○●	파 ○● ○● ○●	하 ○● ○● ○●	억 ○● ○● ○●	언 ○● ○● ○●	얼 ○● ○● ○●	연 ○● ○● ○●	
	열 ○● ○● ○●	영 ○● ○● ○●	옥 ○● ○● ○●	온 ○● ○● ○●	웅 ○● ○● ○●	운 ○● ○● ○●	울 ○● ○● ○●	은 ○● ○● ○●	을 ○● ○● ○●	인 ○● ○● ○●	것 ○● ○● ○●		ㅅ받침 ○● ○● ○●			
약 어	그래서 ○● ○● ○●		그러나 ○● ○● ○●		그러면 ○● ○● ○●		그러므로 ○● ○● ○●		그런데 ○● ○● ○●		그리고 ○● ○● ○●		그리하여 ○● ○● ○●			
숫 자	수표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0 ○● ○● ○●					
문 장 부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줄임표（…） ○● ○●											
영 어	a ○● ○● ○●	b ○● ○● ○●	c ○● ○● ○●	d ○● ○● ○●	e ○● ○● ○●	f ○● ○● ○●	g ○● ○● ○●	h ○● ○● ○●	i ○● ○● ○●	j ○● ○● ○●	k ○● ○● ○●	l ○● ○● ○●	m ○● ○● ○●	n ○● ○● ○●	o ○● ○● ○●	
	p ○● ○● ○●	q ○● ○● ○●	r ○● ○● ○●	s ○● ○● ○●	t ○● ○● ○●	u ○● ○● ○●	v ○● ○● ○●	w ○● ○● ○●	x ○● ○● ○●	y ○● ○● ○●	z ○● ○● ○●	영어시작 ○● ○●		끝 ○● ○●	대문자 ○● ○●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 ㅈ, ㅊ, ㅍ, ㅈ] 다음에 약자 '영'이 올때는 '영'으로 바뀐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직종 개발과 적절한 직업재활 서비스의 필요성

서원선(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대다수의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업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안마는 우리나라의 사회적·문화적인 특성 상 수십 년 동안 시각장애인의 유보업종이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수의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직종 선택의 폭이 점점 넓어짐에 따라 시각장애인들도 안마업 이외의 새로운 직종으로 직업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특별 전형에 기초해 공무원, 교사로 진출을 시도하는 시각장애인들도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의무고용 제도를 활용하여 일반 기업 혹은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는 수도 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직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가능한 직업의 예로는 변호사, 예술가, 회계사, 행정직원, 고객센터직원, 요식업관련 노동자, 재정분석가, 상담사, 사회복지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요리사 등을 들 수 있다.

시각장애인의 취업률을 높이고 직종의 다양화를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나라들이 제도적·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제도적으로 직업재활을 장애인 복지의 핵심적인 목표로 설정하여 가능한 많은 장애인들이 직업을 찾아 자립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3년도 미국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 직종 분석에 의하면 전문/기술/관리업(4.9%), 사무/판매업(6.5%), 서비스업(8.3%), 농업/수산업/산림업 기타 이와 관련된 업종(12.3%), 제조업(12.9%), 기계작업(0%), 건설업(0%)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취업과 관련된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성공 사례에 의하면, 캐나다, 미국, 캄보디아, 호주, 필리핀 등에서 변호사, 상담사, 라디오제작매니저, 연구원, 인식개선 강사, 컨설턴트 등 시각장애인들은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갖고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의 직종 다변화를 위해 여러 형태의 제도적·정책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러 연구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맞는 직종을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청각 능력을 이용한 음향평가사, 바리스타, 요리사 등을 포함하여 최근에는 교사, 공무원, 전문직(연구원, 판사, 회계사 등)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복지관 등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종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컴퓨터 교육을 기초로 사회복지사 재할 영역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 시각장애인들이 다수 진출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장애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 및 제도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직종 역시 개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최근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장애 인식개선 강사로 활동하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처럼 상담이라는 업무가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업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개별적인 요구를 파악하여 서비스를 연계하는 복지플래너 등과 같은 사례관리자와 같은 직업 또한 시각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직종의 사례이다.

이러한 다양한 직종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진출하고 여러 분야에서 시각장애인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직업재활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선하여 개별 상황과 욕구에 맞는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외국의 직업재활 서비스와 우리나라의 직업재활 서비스의 가장 큰 차이는 외국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정 직종을 선정하여 시각장애인을 배치하는 방식보다는 가능한 여러 업종에서 시각장애인들이 본인의 장애 특성과 욕구에 맞는 일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개별 욕구에 기초한 직업재활은 우리나라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직업재활 서비스 전달 방식이 개선되어야 함은 물론 장애인 직업 선택과 관련하여 사회적 · 문화적 · 환경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 변화의 가장 핵심은 시각장애인들이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별 서비스가 제공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게다가 시각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의 개선과 동시에 보조기기 지원, 근로지원인 제공, 고용주의 인식개선 등과 같은 제도적인 지원도 필수적이다. 해외 연구 결과에서도 시각장애인이 성공적인 취업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직업훈련, 보조기기 및 보조공학 지원, 시각장애인의 동기부여, 고용주의 인식, 교육수준, 전문 기술 및 경험, 자립 활동 등의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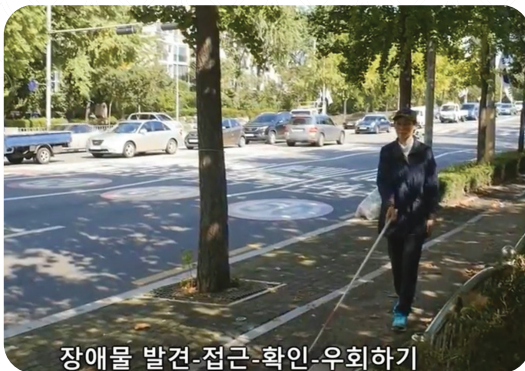
시각장애인의 능력을 평가 절하하고 시각장애인에게 비호적인 직업 환경 속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원하는 직업을 갖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사회적 · 제도적 지원으로는 개별 시각장애인들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절한 직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주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직장 내 근로지원인의 지원, 보조공학 기기 지원, 채용 차별에 대한 법적 조치 등과 같은 요소들도 충족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시각장애인들이 역시 전문 지식과 경험, 컴퓨터 기술, 스마트 기기 사용, 국어 및 영어 구사 능력, 가능한 자립 생활 유지(대중교통 이용, 문서 작성 등),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노출과 수용, 기본적인 사회기술 등의 요소들을 갖추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환경적 · 개인적인 요소가 충족된다면 현재보다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본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 경제적 자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각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보행지도사’

시각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첫 걸음,

독립보행인데요.

시각장애인들이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행지도사’를 소개합니다.



장애물 발견-접근-확인-우회하기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독립적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보행지도사’인데요. 보행지도사는 시각장애인이 직업적으로 재활하고, 일상 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최대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 지도사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지도하는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보행훈련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안전하게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시각장애인은 보행훈련을 통해 독립심과 자긍심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신체 활동이 증가해 사회적 접촉, 교육, 직업, 지역사회 참여 등의 기회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보행에는 안내보행, 흰지팡이 보행, 안내견 보행, 전자기구 이용 보행의 4가지가 있지만, 보행지도사 자격 검정시험에서는 주로 안내보행과 흰지팡이 보행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특히 흰지팡이 보행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흰지팡이를 가지고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하는 일련의 방법인 흰지팡이 보행은 흰지팡이를 통해 장애물을 체크하며 시각장애인이 독립적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남시철(국립재활원 약사)과 임익순(서울맹학교 교사)이 가장 처음으로 현대적인 보행지도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시각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인 보행교육을 실시하였는데요. 우리나라의 보행지도사는 현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행지도사 필기와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필기시험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제정한 ‘보행지도사양성규정’에 따라 보행 이론, 눈의 구조 및 안과 질환, 시각장애인의 이해, 사회복지개론의 4과목 등 80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www.kbuwel.or.kr)의 자료실의 보행지도사 메뉴에서 무료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6년 현재까지 총 7회에 걸쳐 자격 연수와 검정시험이 실시되었고, 연수 참여 인원 137명 중 122명이 검정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행지도사를 양성하여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미국시각장애인재단(American Foundnation for the Blind, 이하 AFB)은 보행전문가 자격검정 기준으로 ‘교육 연한을 1년으로 하는 대학원 과정의 보행전문가 야성 관련 전공 학과를 졸업한 자’로 결정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을 이수한 다음 보행전문가의 슈퍼비전 하에 최소 350시간의 현장 실습을 마친 후 소정의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경우에는 보행과 시각장애 재활 전문가를 함께 양성하는 방향으로 2년제 양성과정을 시행하여 보행지도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행지도사 양성에 1970년대부터 관심을 갖고 실행해 왔으나 아직까지 국가 수준의 자격으로 승격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행지도사가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 가리고 한 끼의 첫 번째 주인공, 아름다운가게 일산주점점 활동천사들

시각장애인의 일상은 어떨까요?

눈을 가리고 먹는 한 끼의 식사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체험해 본 아름다운 가게 일산주점점 활동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눈 가리고 한 끼 캠페인:** 안대로 눈을 가리고 식사를 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을 SNS에 해시태그를 걸어 공유하여 많은 사람들과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체험한 소감을 나누는 캠페인

안녕하세요,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송아나 매니저: 평소 시각장애인들의 일상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통해 이번 캠페인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어요. 눈을 가리고 한 끼의 식사를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짧게나마 체험해볼 수 있다는 면이 긍정적으로 다가와 저희 활동천사님들과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캠페인을 진행하기 전, 시각장애인을 만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채은: 저희 초등학교 옆에 특수학교가 있었어요. 그 때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한 명씩 짝을 지어 저희 반에서 함께 생활하는 프로그램에 있었거든요. 그 때 시각장애인

친구와 하루를 함께 보냈었는데 또렷이 기억나진 않지만 어색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막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임상우: 저는 예전에 종로 장애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그 때 재활 프로그램에서 시각장애인 아이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수업을 들으며 즐거워했던 아이들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송서연: 예전에 길에서 흰 지팡이를 가지고 계신 시각장애인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커피 주문을 부탁하셨는데 제가 어리기도 했고 낯선 사람이기에 두려운 마음에 도와드리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와드리진 못했지만 그 분이 걱정되어 조금 기다리며 상황을 지켜보았는데 아무도 도와드리지 않고 묵묵히 가던 길만을 가시는 것을 보고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그 때

선뜻 도와드리지 못했던 것이 아직까지도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소한 체험이지만 눈 가리고 식사를 해보니 어떠셨나요?

박가을: 처음에는 눈을 가리고 먹는 한 끼의 식사가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체험하는데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막상 안대를 끼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니 반찬을 집는 것도 어렵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음식은 눈으로도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눈으로 음식의 모습을 볼 수 없으니 맛이 반감된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고아현: 저에게 식사는 하루에 두, 세 번 하는 가장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안대로 눈을 가리고 나니 밥과 반찬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은 물론 손가락으로 떠서 입으로 가져가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입의 위치를 감으로 찾아 보니 얼굴에 묻히고, 흘리기도 해 먹는 데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신정혜: 저는 눈을 가리고 짜장면을 먹으며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만약 시각장애인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만나본 적이 없어 막연하게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는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만약 시각장애인이라면 안 보이는 답답함에 많이 괴로웠을 것 같은데 연습과 재화를 통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신다고 생각하니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눈가리고한끼’ 캠페인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체험하려는 많은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한현주: 처음 안대를 끼고 식사하는 체험을 한다는 것이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안대를 끼고 앞에 보이던 것들이 아예 보이지 않으니 당황스러웠고 곧 시각장애인의 하루 세끼는 이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캠페인을 하려는 분들은 우리가 시각장애인이

되어 극히 일부지만 그 일상을 체험해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지한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원경: 저는 이 캠페인이 아이스버킷챌린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캠페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한 영상을 보시고 ‘눈가리고한끼’를 하려는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직접 체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며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김지원: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눈가리고한끼’ 캠페인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일상에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각도로 알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청각장애인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웹툰 ‘나는 귀머거리다’를 보면서 청각장애인의 어려움과 일상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되길 바랍니다.

지다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각장애인 대학생들의 모임도 있다고 들었는데 함께 교류하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으로서의 고민과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송서연: 이번 캠페인을 하면서 우리가 시각장애인에 대해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많은 시각장애인이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날 수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이 첫 걸음이 되어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또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체험하고 공감하면서 한 사회의 구성원들로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지며 느낀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손으로 보는 생물다양성’

시각을 제외한 여러 감각으로 느끼는 생물들은 어떨까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진행된 ‘손으로 보는 생물다양성’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11월 28일 환경부 산하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는 충청북도의 시각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촉각, 청각, 후각으로 생물다양성을 느낄 수 있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대부분의 전시관이나 박물관은 눈으로 보는 전시 위주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관람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진행된 ‘손으로 보는 생물다양성’은 시각장애인도 생물의 다양성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청각, 후각을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만날 수 있는 생물들은 아시아코끼리, 사자, 호랑이, 북극곰, 삼악어, 타조, 철갑상어 등 포유류 18종과 조류 6종, 양서류 7종, 어류 3종 등 총 41종의 생물표본 42 점이었는데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각장애인들은 이 생물 표본들을 손으로 직접 만져보며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각종 새소리와 양서류의 울음 소리, 식물의 잎과 열매, 향기 등을 시각을 제외한 촉각, 후각, 청각을 통해 체험하며 자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안영희 관장은 “이번 프로그램 운영을 계기로 시각장애인에게 생물에 대한 이해와 접근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전시관 관람에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관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전했는데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참여자의 만족도, 개선사항 등을 보완하여 향후 연간 운영일정에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연 2~3회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정말이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여름도 결국 지나가 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겨울 독감을 걱정하며 독감 예방 접종도 하고, 김장 김치 담글 생각에 ‘요즘 배추 가격이 얼마나 되지?’ 하고 살펴보는 시기가 성큼 다가왔다. 지난 여름 내내 커피는 역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부르짖던 나도 오늘은 따뜻한 커피를 훌쩍훌쩍 마시며 라디오를 켰다.

“다음 들을 노래는 지누의 영동한 상상입니다!” 경쾌한 디제의 목소리에 맞춰 ‘영동한 상상’ 노래가 흘러나온다. “창밖을 봐~ 눈이 와~ 그렇게 기다리던 하얀 눈이 와~”

아, 이제는 라디오에서도 슬슬 겨울 노래들이 흘러나오는구나! 그런데 디제의 경쾌한 목소리만큼이나 경쾌한 깜짝 설명이 이어진다. “영동한 상상 이 노래는 여름에 발표된 여름 곡이에요, 여름에 창밖을 바라보며 한여름에 눈이 내리는 영동한 상상을 하며 쓴 곡인 거죠, 지나간 여름을 보내고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 이 노래를 틀었습니다.” 아하, 여름 한가운데서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본다니, 그래서 말 그대로 영동한 상상을 하며 쓴 곡인 거구나! 지금 창문 밖으로 흰 눈이 송글송글 내리고 있다면... 나는 창문을 열어 고개를 내밀겠지? 그리고 내 뺨 위로, 내 손 등 위로 눈들이 와 닿는다면, 으앗! 차가워!

절로 그 찬 느낌이 전해지는 것 같다.

생각해보면 나도 지누만큼이나 영동한 상상을 해 본 적이 있다. 유치원생이었나 초등학교생이었나 아무튼 무지 어렸을 적 이야기이다. 그때 우리 집에는 동그란 탁상용 지구본이 있었다. 세상을 향해 넓은 꿈을 안고 세계 지리 조기 교육을 위해 있었던 건 물론 아니었고, 이 지구본은 그저 나에게는 좋은 장난감일 뿐이었다. 지구본은 정말 동그랗게 생겼고 돌고 돌고 움직이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손으로 열심히 지구본을 돌리면 지구본은 팽그르르 잘도 돌아갔다. 그렇게 지구본 돌리기 놀이에 열중하고 있으면 엄마는 내 옆으로 오셔서 “서진아, 여기에 우리나라 땅이 있고, 우리나라 위에는 중국 땅이 있어. 그리고 중국 위에는 소련 땅이 있고.” 하시며 나를 조기 교육을 해주셨다.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내 머릿속에는 영동한 상상들이

무럭무럭 자라났다. ‘우리나라 위에 중국 땅이 있다고? 그럼 우리나라 저 하늘 위로 쪽 올라가다 보면 중국 땅이 나오는 거야?’ 아무래도 그때 내 머리는 3차원이 아니라 아직 2차원의 세계에 머물러 있었던 게 틀림없다. 아니면 3차원을 뛰어넘어 4차원의 세계에 도달해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그때부터 내 머릿속은 온갖 영동한 상상들로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지진이라도 일어나면 큰일이었다. 중국 땅에 있던 무너진 건물들이며 파헤쳐진 흙더미 돌덩이들이 우리나라 하늘에서 마구 떨어질 것이 아닌가. 중국에서 큰 불이 나도 걱정이었다. 불에 탄 나무들이며 건물들이 우리나라 하늘 위로 내려와 내 머리 위에 떨어질 것 같았다. 다행히 중국에서 지진이 나도, 큰 불이 나도, 내가 걱정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대한민국 주입식 교육의 모범적 순응아가 된 나는, 내 영동한 상상이 남들에게 말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상상이었음을 자연스레 알게 되었다. 결국 그 옛날 나의 영동한 상상은 정말로 나만의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된 채 저 멀리 사라져만 갔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자, 취업 문제, 집안 문제, 친구 문제, 건강 문제, 게다가 각종 사회 문제까지, 갖가지 먹고 사는 일들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도 많아져버렸다. 내 머릿속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채워져 영동한 상상들이 들어올 시간과 공간을 잃어버리고 살게 된 것 같다.

“고모야, 고모야, 우리 아이스크림 먹고 꼭꼭 숨어라 놀이 하자!” 노래에 맞춰 흘러 흘러 가던 내 영동한 상상의 추억들이, 네 살 된 조카 가현이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멈춰 섰다. 가현이의 말문이 트여갈 무렵부터, “고모 이름은 서진이야.”라고 열심히 내 이름을 주입시켰지만, 고모 이름은 모르겠다며 고모는 그냥 고모라며 내 이름을 순식간에 김고모로 개명시켜준, 너무나 사랑스러운 조카다. 지금 가현이의 머릿속에는 어떤 영동한 상상들이 날개를 달고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을까. 조카 가현이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을 수많은 영동한 상상들이 사라지지 않고 오래도록 남아있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냉장고 문을 열어 조카와 함께 먹을 아이스크림을 꺼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클림트의 '키스'

오스트리아의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 1862-1918)의 명작인 '키스'가 3D 프린터를 통해 재탄생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작품은 유화물감으로 그린 그림위에 금박을 덧대 실제로 보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요, 고가의 명작이기 때문에 작품을 만지는 것은 물론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3D 프린터를 통해 제작되면서 시각장애인들도 우물투들한 유화의 감촉을 느낄 수 있으며, 센서를 통해 작품 설명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작자 라이너 텔가도는 “이번 기회를 통해 시각장애인들도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평을 열고 싶다”며 “미래엔 집집마다 3D 프린터를 둘 것이기 때문에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작품 사진만 다운로드 받으면 집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가전전시회 IFA, 시각장애인 전용 가이드 투어 선보여

물건을 전시해 놓고 보는 행사인 전시회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인데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의 가전전시회 IFA에서는 시각장애인 전용 가이드 투어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독일의 시각장애인 연맹에 소속해 있는 지역 단체인 ABSV는 IFA 사무국의 협조를 얻어 전시회 일정 동안 가이드 투어를 진행하였으며, 오디오 장치를 통해 주요 부스를 이동하며 새로운 가전제품의 기술과 트렌드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가이드 투어 행사를 통해 IFA에 방문한 시각장애인들은 수많은 전자업체의 가전제품을 체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경기도 양평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겨요!

지난 11월 10일과 11월 15일,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외갓집 체험마을에서 시각장애인 이용자들의 체험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체험활동에 참가한 시각장애인들은 직접 떡메를 치며 인절미를 만들어보기도 하고 직접 연 만들어 날리기, 새끼줄 꼬기, 군고구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는데요. 체험활동에 참가한 시각장애인은 “추운 날씨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와서 다양한 활동을 즐기다보니 추위를 잊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시련,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무자 워크숍 실시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대전에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무자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이번 실무자 워크숍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지부 및 유관기관에서 편의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참가하였는데요.

이번 워크숍 참가자들은 “1박 2일의 교육을 통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국내의 이슈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추운 겨울, 김장김치로 사랑을 나눠요!

12월 7일, 서울메트로 산악회 자원봉사자들이 김장김치로 따뜻함을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서울메트로에서 나눈 2016 겨울맞이 사랑의 김장김치는 10kg씩 서울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강북구 인근의 시각장애인 100가정에 전달되었는데요. 이번 행사에 참여한 서울메트로 산악회 자원봉사는 “김장김치로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되어 행복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2016년도 취업자 평가회 열려

2016년도 취업자 평가회가 12월 9일에 열렸습니다. 이번 평가회는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2016년 직업재활 경과보고 및 우수 업체 감사패 전달식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헬스키퍼 등 다양한 분야로 취업에 성공한 참석자들은 취업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취업자들의 활기찬 2017년을 기대해봅니다.

2016 정보 접근성 기술 컨퍼런스 개최

지난 12월 9일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2016 정보 접근성 기술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공동주최로 진행되었는데요.

참가자들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최신 신기술 및 동향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6년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송년회 열려

2016년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송년회가 12월 10일에 열렸습니다.

이번 송년회는 한 해 동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 봉사, 입력 봉사 등을 진행하고 물품, 기부금 등을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송년회에 참석한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분들은 영상으로 제작된 1년 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서로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택시를 탈 때

시각장애인이 택시를 타려고 할 때에는 도움을 주려는 의사를 시각장애인에게 말로 전달하시고 행선지를 파악하고 안전한 곳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하신 후 빈 택시가 오면 탑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때 시각장애인의 오른손은 차의 문에, 왼손은 차의 지붕에 얹어주면 혼자서 차를 타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 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단체인원을 대상으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에서는 시각장애에 대한 교육 및 시각장애 체험을 진행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자원봉사센터, 도서관 등에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 상 초·중·고등학교 및 사회인

내 용 시각장애이해 및 에티켓교육, 한글점자이해, 시각장애체험, 여가·문화체험 등

진행장소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진행

체험시간 3시간 이내(봉사활동 확인서 발급가능)

상담·접수 02-950-0133 박승만

|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